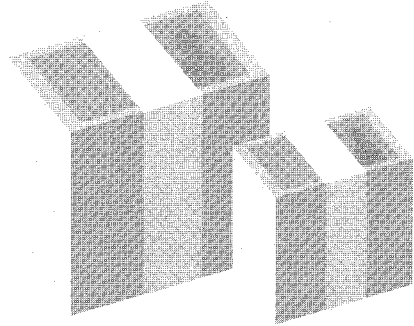


유럽 선진 농업금융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작년 7월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용사업의 경영 개선과 이윤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관한 논의는, 농민단체들의 근본적 농협개혁 요구와 맞물려 급진전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북에서 농가부채 문제로 인한 농민 음독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농업금융시스템의 농민중심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나 금융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콜과 네덜란드의 라보뱅크그룹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농업금융개혁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월간 한농연」 지면을 통해 이들 유럽 선진 농업금융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2.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콜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콜은 19세기 말 프랑스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금융 대출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꾸

준한 발전을 통해 1988년 민영화 조치 이후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했으며,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자 농업금융 전문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끄레디 아그리콜은 「지방은행(지역은행을 지배하
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회원조합) ① 지역은행(도 단
위 금융기관) ② 끄레디 아그리콜 중앙은행(중앙 사
업조직 - 이하 중앙은행) / 끄레디 아그리콜 전국연
맹(중앙 운동조직 - 이하 전국연맹)」의 3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회원조합격인 지방은행은 금
융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지역은행에 대한 10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지역은행을 지배하고 있다.

실제 금융업무는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은행이 담
당하고 있다. 지역은행들은 도 단위별로 구분된 업
무구역 내에서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행은 운동조직인 전국연맹의 구성원이
면서 사업조직인 중앙은행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행들의 운동체적 연합회 기능은 전국
연맹이 담당하고 있다. 전국연맹은 지역은행의 이해
를 대변하고 직원교육 기능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담당한다. 전국연맹 이사 중 상당수가 중앙은행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이다.

중앙은행은 지역은행들이 90% 지분을 갖고 출자

한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연합체이다. 원래 프랑스 농림부 내 농업정책자금 담당 부서에서 출발하여, 1920년 농림부에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운영되었고, 1988년 민영화를 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앙은행은 산하 지역은행의 채무에 대한 최종 상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제금융이나 위험자산 관리 등을 위한 자회사를 다수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끄레디 아그리콜의 지배구조는 협동조직인 정책 부문과 경영조직인 사업부문으로 철저히 2원화되어 있다. 지방은행 지역은행 중앙조직 모두 협동조직의 대표자와 경영조직의 경영대표가 나뉘어 있다. 이러한 2원화된 지배구조를 통해 끄레디 아그리콜 전체 조직은 협동조합적 운영 원리 속에서 건전 경영 및 조합원 최대 봉사를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2001년 말 이후 주식상장을 하면서 CA S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향후 CA SA는 지역 은행들이 별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CA SA에 대해 70%의 지분을 행사하고, 나머지 30%는 개인·기관투자자와 내부 직원의 몫으로 배분하여 지배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자본구성과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협동조합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중앙은행(CA SA의 전신)의 민영화 당시 정부 지분은 철저히 끄레디 아그리콜 내에서만 분배되었고, 의결권은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행사되고 있다. 일반 주식회사와 매우 다른 독특한 분배를 통해 지방은행(회원조합)과 지역은행의 CA SA에 대한 통제권한을 늘리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3. 네덜란드의 라보뱅크그룹

네덜란드의 라보뱅크그룹은 1896년 독일 협동조

합운동가인 라이파이젠의 농촌신용협동조합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장기화된 농업불황과 농촌지역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 네덜란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네덜란드 농민들은 독일의 협동조합 운동가인 라이파이젠이 창안한 독일식 농촌신용협동조합을 네덜란드에 접목시킨 최초의 협동조합은행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초창기부터 라보뱅크그룹은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신 조합에 대한 지분소유권과 배당 청구권이 없으며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현재는 유한책임으로 변경)을 저야 하며 조합 경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배당없이 전액 내부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라보뱅크그룹은 100여년 이상의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유일한 민간금융기관이 되었다.

라보뱅크그룹은 2단계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① 개별 법인의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은행인 「지역 라보뱅크」와 ② 이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라보뱅크 네덜란드」로 되어 있다. 지역 라보뱅크는 각 지역별로 업무구역이 나뉘어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는 일반조합원과 조합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출자조합원으로 나뉜다. 이들 지역 라보뱅크들의 사업연합체인 「라보뱅크 네덜란드」는 지역 라보뱅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자회사 운영 등을 통한 보험·위험자산관리·국제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흥미있는 점은, 라보뱅크그룹이 각 지역 라보뱅크 사이에 약정한 “상호교차보증제도”에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 라보뱅크들은 어느 한 쪽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여타 지역 라보뱅크에서 법률적 협정에 의거하여 자금을 보증해 주게 된다.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콜과 함께 라보뱅크그룹

은 비농업분야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라보뱅크그룹은 농업부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금융 부문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4.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선진 농업금융기관들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조직과 회원조합간 확고한 협력·견제의 관계

2002년 7월에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에는 기존의 농협중앙회가 신용·경제사업의 상위에 있는 사업체로 설정되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에서의 독립사업부제 강화나 2단계인 신용·경제사업연합회 단계, 마지막 3단계의 회원조합 신경분리 완료시기까지 농협중앙회는 기존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단체들과 협동조합 전문 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후에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농업계 내부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배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끄레디 아그리폴의 경우, 지방조합은 지역은행(100%)과 중앙조직(90%)에 대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여 상위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조합·지역은행·중앙조직까지 집행기구와 감시기구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라보뱅크그룹의 중앙조직은 더욱 엄격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조직인 「라보뱅크 네덜란드」에는 감독·경영·집행의 3개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이사회 조직이 있다. 끄레디 아그리폴과 같이 중앙조직이 주

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원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이 보유한 출자 지분과 우선주 등을 통해, '인적 결합'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자금을 원활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같이 선진 농업금융기관들은 회원조합과 개별조합원들에게 중앙조직의 건전 경영과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강력한 감독·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원조합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은 매우 미약하다. 회원조합의 조합장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들이 상호금융특별회계와 막대한 정책자금의 배분권한을 쥐고 있는 거대 사업체인 농협중앙회의 위력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핵심은, 회원조합 지원 기능 및 농권운동의 핵심주체이자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를 탄생시키고,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연합기능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사업들의 실질적인 통제권한은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

(2) 2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효율적인 운영 체계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 농업금융기관들은 「회원조합 중앙조직(사업조직·운동조직)」의 2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2단계 조직체계는 불필요한 조직운영비용과 각종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조합원들에게 낮은 금리의 풍부한 자금과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농협 시군지부의 폐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내 금융기관 간 예수금 및 공금고 유치 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

에서,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와 회원조합의 신용사업간의 내부 경쟁마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실의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인력 및 자원이 낭비되고, 회원조합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생기고 있다. 「회원조합 시군지부 시도지부 중앙본부」로 이어지는 농협의 4단계 계통조직은,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농연 및 각 농민단체들은 한결같이 농협 시군지부의 폐지와 공금고의 회원조합 이관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지부 폐지로 인해 생기는 농업금융·지역금융의 업무공백은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영역 확장 및 경쟁력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의 지방은행처럼 회원조합이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 가뜰이나 자금부족과 경제사업 적자에 시달리는 회원조합의 재정은 파탄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공금고를 회원조합(개별 조합이나 조합간 사업연합 등)에 유치하고, 회원조합 자체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와 농협중앙회 각종 금융상품(예금·대출·공제·보험·카드 등)의 대행판매가 가능하도록 농협법·은행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회원조합 스스로도 농업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대조합원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도금융 강화·금융업무 전문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회원조합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농업금융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막강한 국제 금융경쟁력

시장 흐름의 위험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회원조합들의 지도금융 시스

템 미확립 등 한국 농업금융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 및 경제사업 지원 내부 지원금리는 2002년 현재 8.25%이다. 이 때문에 농민 조합원의 경영 개선과 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번 경북 봉화의 박연거씨 사건과 같은 각종 금융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금융 및 농업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지닌 선진 농업금융기관들은 농관련 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도매금융이나 위험자산 관리를 위한 자회사 운영에도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대 조합원 서비스 강화와 자체 적립금 축적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와 계획 수립은,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용사업의 생존과 성장만이 아닌, 협동조합 이념에 기반한 「농민조합원에 대한 저렴한 자금 공급처」이자 「건전한 농업전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자기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농연**

< 도움받은 글 >-----

- 「세계 일류 농협은행의 성공요인 - '크레디 아그리콜' 과 '라보뱅크 그룹」, 「CEO Focus 제28호」, 현성현,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8
- 「네덜란드 라보뱅크 - 세계적인 협동조합은행」, 「CEO Focus 제72호」, 김두년,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9
-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 - 세계적인 협동조합은행(2) -」, 「CEO Focus 제74호」, 김두년,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9
- 「크레디 아그리콜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Agroinfo Issue No. 4」,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2002
-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제2부-」, 한국금융연구원, 2002
- 「계간 농정연구」, 2002 가을호(통권3호), 농정연구센터